

도, 차고지증명제 수정·보완 '진땀'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재검토 등 손질 추진 차고지 목적 토지형질변경 등 개선방안도 검토

지난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행된 가운데 각종 민원·문제점이 발생·예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 개선과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차고(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분할 및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현재 읍면지역 연 73만1250원,

동지역 연 97만500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앞두고 공영주차장 임대 증가 전망 및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동지역 120만원, 읍면지역 90만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무주택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료 부담가중 여론 및 민원이 발생하면서 도는 또다시 임대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임대료 대폭 인하 필요성을 제안하

기도 했다.

현재 도는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하 수위와 대상을 검토 중이다.

행정시, 읍면동 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 협의를 거쳐 올해 안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임대료 개선이 민원해소용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도 있다.

도가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면도로 활용 '제주형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타 시도

의(최대 월 5만원) 부과 요금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인만큼 연간 부과요금은 최대 60만원에 예상되고 있다. 관련해 도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투입되는 시설·운영·관리비가 고려된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는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평균 30~40일 소요되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토지분할·지목변경에 따른 측량·전용비 부담 가중에 따른 도민 불만발생이 예상되면서 처리기간 단축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개선 민원 해소를 위해 점검회의를 하며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사진=제주서부소방서 제공

"소방차길은 생명 지키는 길입니다"

제주서부소방서 캠페인 "화재진압 골든타임 7분"

소방당국이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한다.

제주서부소방서는 21일 여름 휴가철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별도의 통제 없이 실제 화재현장 출동과 유사하게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과 지난 1월 개정

된 도로교통법 홍보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으로, 화재 신고 시점부터 7분 이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제주 전체 화재 현장에 7분 이내 도착 확률은 63.1%로 전국 평균 64.4%에 비해 1.3% 낮았으나, 올해(7월 말 기준)는 76.1%로 지난해 동기보다 1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리면 도로 상황에 맞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자동차세 상승체납 제주시 '전면전' 돌입 체납차량 3만1858대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승·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365 영치팀'을 가동해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과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365 영치팀은 3명으로,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 유도를 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1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22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3만1858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감귤수확 봉사활동 한국생물개선훈리연합회원들이 19일 영평동 감귤농장을 찾아 감귤열매수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가을 길목 '처서' 눈 앞... 열대야 사라졌다

낮 최고기온 30℃ ↓ 기상청 "20일부터 비"

가을 길목에 접어든다는 '처서'를 앞두고 맹위를 떨치던 열대야도 사라졌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은 제주시 24.6℃, 서귀포 24.5℃, 성산 22.4℃, 고산 23.7℃ 등 모두 25℃ 이하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관측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제

주시에서 첫 열대야가 기록된 이래 25일 만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제주시 29.1℃, 서귀포 30.1℃, 성산 30.2℃, 고산 28.1℃로 30℃ 안팎의 기온을 보였다.

여기에 20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무더위는 한풀 더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낮부터 기압골에 동반된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 산지와 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기울어진 배 바로세워 현재 부산항으로 이동"

속보=제주 인근 바다에서 침수 사고를 당한 케미컬운반선이 부산항으로 예인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침수가 발생했던 케미컬운반선 S호(1833t·한국선적·승선원 13명)가 예인선 J호(495t·승선원 8명)에 의해 부산항으로 예인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선박에 침수가 발생해 좌현으로 20~30도 가량 기울어졌다. 현재는 내부 기울기 조정 작업을 통해 바로 선 상태이며, 추가 침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S호는 20일 오후 5시쯤 부산으로 입항 예정으로, 입항 시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입항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취득
법학박사

임세훈
(한메투자개발 대표)
(동초등학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제주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채경호, 오수진 법무사 사무소
직원 일동

취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축산학과 동문회·목양회
회원 일동

합격
조정기술사

김효준
(대정고46회, 제주대졸업, 해병대ROTC29기)
(경기도시공사 근무)
(부: 김무근 · 모: 강영애)

조정기술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 작정승공파 필방문중 회수회
회장 김창희 외 회원일동

취득
영어영문학박사

오은숙
(부: 오성진 · 모: 김정자)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위오씨 중말파 흥두공계 종친회